

OSID 2011 학술 프로그램 개요

오송 심포지움 2011은 한미 보건장관회담에서 협의되었던 백신연구개발과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응연구 등에 관한 양국간의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학술 프로그램은 4개의 주제를 대상으로 기초연설과 특별강연 각 2개, 그리고 주제별로 연자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각각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1. 백신 연구개발

- 미국 NIH의 새로운 항원 및 면역원의 개발 방법과 그에 따른 면역 기전의 연구
- 미국 NIH의 생물테러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백신 개발의 현황
- 국제백신연구소; 저개발국가 보급을 위한 콜레라 백신의 새로운 생산방법 개발
- 국립보건연구원의 탄저 재조합 백신의 개발 현황

2.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응연구

- 일본 NIID의 새로운 항원을 기반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치료제 연구
- 국제백신연구소의 점막 면역 및 수동면역을 이용한 인플루엔자 치료항체 연구
- 신종인플루엔자 범부처 연구사업단의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응 연구 종합 발표
- 국립보건연구원의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응 연구 현황

3. 결핵 최신 동향

- 러시아 에겔하트 분자생물학연구소의 결핵 연구
- 대만 CDC의 결핵 연구 동향
- 국제결핵연구센터의 결핵환자 임상 분석 연구
- 국립보건연구원의 결핵 연구 방향

4. 기후변화와 신종전염병

- 일본 NIID의 기후변화에 의한 신종 전염병 출현 대응 연구
- 태국 마히돌 연구센터의 기후변화와 말라리아 분포변화 연구
- 중국 CDC의 중국내 기후변화에 따른 재출현 전염병의 분포 동향
- 국립보건연구원의 기후변화와 신종 또는 재출현 전염병에 대한 감시 및 대응책 연구

그 외에 WHO 서태평양지구 지영미 박사의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전염병에 대한 아시아 지역의 실험실 기반 대응 상황" 보고와 미국 NIH의 Johnathan Yewdell 박사의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에 대한 분자 모델링 연구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별도의 세션을 통해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국립보건연구원의 백신연구센터 (Vaccine Research Center) 프로젝트에 대한 향후 협력과 공동연구, 신종감염병 감시 및 대응방안 연구를 위한 아시안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별도 토의를 할 계획이다.